

# 전북도 '하이퍼 창업도시' 비전 선포 1조 벤처펀드 기반 '1:10:100' 육성

2030년 유니콘 기업 1개 목표  
초공간·초연결·초가속 3축 추진  
스타트업파크 350억 조성  
전북형 TIPS·유니콘펀드 가동  
AI 기반 통합창업시스템 구축

전북도가 자본의 불모지라는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퍼 창업도시'로 비약을 꿈꾼다.

김관영 도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개 ▲2029년까지 상장사 10개 ▲2028년까지 TIPS(기술창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기업 100개 육성이라는 '1:10:100'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하이퍼' 비전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가 안고 있던 공간적·속도적 한계를 허물겠다는 의지를 담아, 초공간·초연결·초가속 세 축으로 구체화했다.

그 배경에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벤처펀드 1조 원 시대를 연 성과가 있다.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 속에서도, '자본의 역외 유출'이라는 고질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단순 보조금 지원이라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직접 투자와 그 수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전북 벤처펀드 1조 원 시대'라는 이정표를 세우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의 토대를 다졌다.

도는 이 흐름을 세 축의 실행 전략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초공간'은 전북 전역을 하나의 유기



2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창업 활성화 정책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적인 창업 인프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는 2028년까지 35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해 지역 창업의 랜드마크로 키운다. 전주(2023년)에서 익산(2026년)·군산(2028년)으로 순차 확대되는 '스타트업 키움 공간'과 연계해 권역별 거점 네트워크도 다진다. 14개 시군에 분산된 지원 플랫폼을 하나로 묶는 'AI 기반 맞춤형 창업지원 통합 서비스'를 연내 가동해,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본·공간·컨설팅을 AI가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지능형 생태계도 완성할 계획이다.

'초연결'은 전북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창업 생태계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 방점을 둔다.

비수도권 최초로 문을 연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발판 삼아 2027년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구축을 위한 국가에

산 확보에 나선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도내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금·사업화 자금·TIPS 연계 지원으로 해외 창업 인재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

'초가속'의 핵심은 '전북형 TIPS 육성 트랙' 가동이다. 피지컬 AI 특화 트랙과 대·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경로를 운영한다. TIPS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AFTER TIPS 펀드'로 기술 창업의 성장 단절을 막는다. 공공실증부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공공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공공실증 하이패스'도 함께 운영된다.

투자 생태계 고도화도 병행 추진한다. 5,000억 원 규모의 '유니콘 연진 펀드'를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하고, IPO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VC)에 차기 펀드 결성 우선권을 부여하는 '펀드결성 프리패스 티

켓' 제도를 도입해 투자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에서 시작한 작은 아이디어가 세계를 흐르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때까지 전북이 멈추지 않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창업 전국 전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문승우 "예산안 제출 앞당겨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문 의장, 시도의회장협의회 건의안 제안  
예산 심의기간 확대 필요성 강조  
제출·의결 기한 현실화 촉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회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 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되었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



문승우 의장

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러한 일정은 현재

급증한 지방재정 규모와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기 어렵다.

문 의장은 1995년 민선자치 부활 시 42조 6천억원이던 지방예산 규모가 2026년 현재 326조원으로 30년간 약 7.7배 증가했으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 건수도 2002년 232건에서 2024년 2,738건으로 10배 이상 확대된 사실을 설명했다.

또 문 의장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제출·의결 기한은 예산 심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정철 기자

## 고창군, 테마파크 협약서 유출자 경찰 고소

모나오피스 협약대외비 문건 유출  
전북경찰청에 수사 의뢰  
유출 사진 보도 매체 삭제 요청

고창군이 ㈜모나오피스와 체결한 '고창 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 대외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유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4일 전북경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고창군과 ㈜모나오피스가 심원면 만들리 일원의 리조트 조성을 위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최근 한 지역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문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명시한 문서이다.

고창군은 군의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협약서 각 페이지에 '대외비' 문건을 명확히 표시하고 문서 번호를 부여해 사본을 제출했으나, 지난 14일 해당 사본의 사진이 해당 매체에 게시되면서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고창군은 이번 문건 유출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투자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2월 24일 전북경찰청을 방문하

여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고소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고창군은 해당 문건 사진을 보도한 매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진 활용 중단과 기 게시된 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다.

군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문서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리조트 조성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협약 당사자인 ㈜모나오피스와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 민주당 공직평가 "납득 못해" 이의 신청

민주 현역 광역단체장 5명 중  
제주지사만 감점 패널티 20%

오영훈 제주지사가 25일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피파 흘려 노력



오영훈 지사

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다.

오 지사가 이같이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고 공개함에 따라 민주당 5명의 광역 단체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4명은 감점을 받지 않는다.

오 지사는 "(하위 20% 평가에 대해)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도 당헌·당규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생각"이라면서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 도 먹거리 1,924억 투입...공공급식·탄소중립 본격화

### 도, 2026년 먹거리 시행계획 확정 6대 전략·67개 사업 추진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71% 유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강화

전북도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위원회를 열고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정책의 통합·조정을 담당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시행계획의 주요 전략과 사업 방향을 점검했다.

또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지역 공공먹거리 정보체계 구축 등 67개 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2026년 먹거리 시행계획"은 도와 도 교육청이 협력해 수립한 통합계획으로 6대 추진전략, 18개 핵심과제, 67개 세부사업에 총 1,924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급식·복지·교육·환경을 아우르는 전북형 먹거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14개 시군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및 14개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 운영하고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비중 71%를 유지하는 등 지역먹거리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농식품 바꾸쳐 본사업도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생산·유통·복지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했다.

2026년에는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기반 수급관리 체계 강화 ▲공공급식 중심 지역먹거리 소비 확대 ▲도민 식생활 돌봄 확대 ▲미래세대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탄소중립 급식 실천에 집중한다. 품목·원산지·발주처 등 데이터 입력 기준을 표준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거래 실적 등록을 의무화해 공급 현황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사진=전북도>

도는 앞으로도 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하며,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민선5기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

국장은 "2026년 시행계획은 지역먹거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먹거리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개발공사,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총력

### CEO 주관 청렴회의 개최 반부패 4대 전략·과제 논의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지난 24일 CEO 주관 청렴회의를 개최,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대근 사장은 "청렴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이자 도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2026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함께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장정철 기자

## 윤준병, '헵프산업 육성·안전관리 특별법' 발의

### 저유해 대마 산업화 근거 마련 재배·가공·유통 허가체계 구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인 '헵프'를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의료·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배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헵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을 묶어 일괄적으로 규제하면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농도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 마약으로 취급받아 정상적인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선진국은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을 '헵프'로 별도 정의하여 마약류와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헵프를 섬유, 식품, 의약·의료,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련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헵프가 지닌 막대한 산업적·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극히 제한적인 재배나 가공·학술·의료 목적 등 일부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어 헵프의 산업적·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 '헵프'로 정의하여 합법적인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윤준병 의원

제정법을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은 헵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헵프 재배 및 육종과 헵프 제품 제조업·판매업·수출입업·운송업 등을 하려는 자는 국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여 철저한 관리 및 허가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헵프취급자에게 헵프나 원료 물질, 공정부산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헵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헵프의 재배 및 제품 제조 지역을 특정 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헵프산업의 집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헵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한각성이 없는 헵프를 마약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적자생존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및 추적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무단 유출이나 오남용 등의 문제를 철저히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의회, 시도의회의장協 개최...지방자치 연대 강화

###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참석 예산안 제출기한 개선안 논의 새만금 일대 현장 탐방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각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강임준 군산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연대를 위한 뜻을 함께했다.

회의 첫날인 25일에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 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 기한 개선 건의안 △의정 지원 인력 운영 개선 건의안 등 총

12건을 논의했고, 26일에는 새만금 33센터와 선유도 등 새만금 일대를 탐방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 앞에서 지방자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특히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정철 기자

## 이원택 "새만금, AI·반도체·수소 심장 산업 육성"

### 이 의원, 새만금 대전환 구상 발표李大통령 임기 내 공항·철도 완공 재생에너지 20GW 확대 추진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2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을 육성해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대전환 구상안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5년간 새만금을 미래 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기반시설 지연으로 사업 속도가 더뎠다. 이제 기반시설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 산업 지평을 넓히는 전초기지"인 새만금 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은 말했다.

우선 새만금지구의 효율적인 매립과



이원택 의원

더불어 매립된 곳에서는 지체없이 산업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29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을 마무리

해나갈 예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9년 개항 목표에 맞춰 연차별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새만금 인입철도는 개통 시기를 오는 2033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는 등 공항과 철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지역 간 연결도로 1차 개통과 남북 3축 도로 착공을 임기 내 마무리하고, 신항만 추가 선석과 배후부지를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속도를 높일

로써 새만금 지구의 교통과 물류 체계 조기 완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전북을 탈바꿈 시키고, 그 위에 전북을 먹여 살릴 산업을 세워 투자자가 실제 일자리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하겠다는 게 이 의원의 구상.

산업 전략으로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지대로 재편하기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현재 7GW에서 전북 전체 기준 최대 20GW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구축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RE100 산업벨트 조성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그린수소 기반 수소 혁신밸리 조성 ▲2차전지 및 반도체 실증·패키징 산업 육성 ▲농생명 바이오와 서해안 관광 고도화 ▲연구개발 기

반 확충 등을 6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 수변도시를 거점으로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로봇 제조공장이 들어서도록 함으로써 최근 새만금에 10조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힌 현대차그룹 등 글로벌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만금을 수출형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출기업의 물류·통관·세제 환경을 과감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첨단산업, AI 전환,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과 나란히 서야 한다"라며 "새만금이 준비의 시기를 넘어 산업의 시기로, 가능성이 현실화되도록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감기와 독감 예방법



적절한 강도로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실내온도와 습도 적절하게 유지하기



걸칠 수 있는 옷을 준비하여 체온유지하기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 컨디션 유지하기

#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본격화

## 사업비 총 764억원 투입 예수병원 부지 150병상 규모

전북지역 장애인 및 재활 환자 위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오는 6월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권역 재활병원은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지상 7층에 연면적 1만710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곳은 150병상 입원 병동과 20병상 규모 낮병동, 재활 전문 외래진료 기능을 갖춰 향후 지역 내 공공보건으로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21년 권역재활병원 공모에 각각 선정됐다. 이후 두 시설 통합 설치·운영 방향 연계 건립이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764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비 98억을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향후 재활병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사회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2026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 전략 분야 28개 총 143개 사업 전 생애주기별 전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전주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위한 '2026년 제1차 인구정책위원회'를 25일 개최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안)과 '2026년 전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신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회의는 △저출생 △고령화 △청년 △

주거도시 △인식개선 △외국인 등 6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시는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전주' 비전으로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관련해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전주'라는 비전 아래 4개 전략 분야 28개 부처와 협업을 통해 143개 사업이 추진된다.

'함께 양육하는 환경 조성' 분야 총 50

개 사업에는 임신·출산 지원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 '청년 자립 및 지역 정착 기반 강화' 분야 43개 사업은 청년 취·창업 지원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전주 조성 목표로 추진된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중장년과 노후 생활 지원' 분야 26개 사업을 통해 전환기 중장년층을 지원하고 선제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통해 활기

찬 노후를 보장한다.

'글로벌 정주 매력 강화 및 포용도시 구현' 분야에서는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참여해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정책으로 꾸며진다.

생활인구 유입과 광역도시 기반 조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24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위한 실무적인 토론을 펼쳤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31개 농업 지원 사업 확정·현장 체감형 지원

### 30억원 규모 농업 보조사업 심의 기후변화 대응농가 경영 안정 중점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25일 개최했다.

심의회는 올해 추진하는 각종 농업 분

야 보조사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 적정성과 경영 여건,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총 31개 사업 30억원 규모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 농업 지원사업은 기후변화

에 따른 농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핵심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병해충 방제 지원 확대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한 생산성 안정화 및 품질 향상, 농가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이번 보조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정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 확대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한 생산성 안정화 및 품질 향상, 농가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

### 통신판매 쇼핑몰·배달앱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7개반 38명이 투입하여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TV홈쇼핑' 등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 원산지 거짓표시 품목(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을 중

심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 원산지 표시, 상단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 원료 표시,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상세 설명 참조로 표시하고 상세 설명란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 및 광고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7개반 38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거

짓 표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 방법 위반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한종현 지원장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대병원서 전국 시·도 사무관 정책 현장 간담회

### 공공보건의료 정책 실효성 향상

전국 시·도 사무관들은 지역필수의료와 공공보건의료 정책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정책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주관으로 진행됐다. 특히 간담회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실효성 향상과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이 추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를



비롯한 공공의료사업과 주요 국책사업 등을 공유했다.

분임 활동 토의 시간에는 정책 결정 현장에 서게 될 사무관 승진자들과 함께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병원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임상교수제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공원(주)포스코이앤씨 정원 조성

### 사람과 자연 기업이 함께하는 치유

전주덕진공원에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정원이 조성된다.

25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종진 ㈜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본부장은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기업동행행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5월 전주에서 개최되는 '2026년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 덕진공원에 기업동행행진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덕진공원 내 기업동

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약 1억원을 투입해 기업동행행진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원은 ㈜포스코이앤씨의 친환경 경 역량과 공익가치를 담은 특화정원으로 조성돼 사람과 자연, 기업이 함께하는 치유와 교류, 공존의 힘터의 공간으로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열린 정원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덕진공원을 정원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정원 명소이자 정원도시 전주의 상징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올해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덕진공원에는 국립정원문화원과 공동 추진하는 코리아 가든소 작가정원 5개소와 서울시 우호정원 1개소, 전북현대모터스와 ㈜포스코이앤씨 기업정원 2개소 등 총 8개 정원이 조성돼 국내 최고 작가들의 창의적 디자인이 담긴 특화정원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시는 박람회 이후 이들 정원이 시민 휴식 공간이자 치유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상설 전시하며 가꿀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 정성자 제20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취임

25일 제19대 온은아 회장 이임식 제20대 정성자 회장 취임식 개최



제20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정성자 대한어머니회 전북주요 연합회 회장

(사진)이 취임했다.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25일 '제19대 온은아 회장 이임식 및 제20대 정성자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정기총회는 △지난해 사업 보고 △올해 사업 추진계획 보고 △온은아 전임 회장 이임식 △정성자

회장 취임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350만원 상당의 쌀 10kg 100포를 여성·아동보호 시설에 전달했다.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11개 단체 3000여명 회원으로 구성된 전주시여성단체 대표기구다.

협의회는 양성평등의식 제고 및 평등문화 확산 사업 등 여성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 관련 정책 실현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 및 반찬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 위한 활동에도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주부평생학교 '제10회 초·중등학력 인정 졸업식'

### 총 33명 늦깎이 졸업장 수여

늦깎이 배움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고 세상과 소통하는 제2의 인생을 찾는다.

전주주부평생학교는 25일 '제10회 초·중등학력 인정 졸업식'을 개최해 33명의 졸업생에게 값진 졸업장을 수여했다. 초·중등학력 인정 졸업식은 경제적·사회적 사정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졸업식 중 우수한 성적과 학교생활에 모범을 보여준 4명의 졸업생들에게는 우범기 전주시정상이 수상됐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효율적 119구급차 운영 협조 당부

25년도 구급출동 18,865건 중 2764건 비응급 이송 통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환)는 최근 비응급 환자 119구급차 이용 사례가 지속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전주덕진소방서 119구급차 운영 시민 협조 당부는 원활한 응급의료 체계 가동과 중증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함이다.

'25년도 전주덕진소방서 구급 출동 현황 통계에는 총 구급출동 건수는 18,865건 중 약 14.7%에 해당하는 2764건이 응급성이 낮은 비응급 환자의 이송으로 확인됐다.

비응급 환자 유형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고열·호흡곤란 동반 시 제외) △경미한 열상·타박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송 요청 등이 포함된다.

/정소민 기자



## 국방벤처 협약기업과 함께 K-방산 경제 영토 확장 가속화

전주시가 탄소·수소 산업을 잇는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벤처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시는 25일 국방벤처 협약기업인 ㈜유포스(대표 양계모)와 ㈜편잇(대표 최인형)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임숙희 시 경제산업국장장과 양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업 현장 방문은 시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준비 중인 '첨단복합소재 기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방위사업청 주관) 공모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번째 방문지인 ㈜유포스는 지난 2024년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기' 100(3기)에 선정된 유망기업으로 VCSL(수직공진 표면방출 레이저), 고효율LED칩과 바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 레이저 회사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방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국내 최초로 VCSL 상용화에 성공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어 방문한 ㈜편잇은 게임 기반 XR(확장 현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훈련 시뮬레이션과 박물관 체험형 콘텐츠 등 융합형 콘텐츠를 개발·수출하며 디지털 기반 수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시뮬레이터를 시연하며 디지털트윈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국방 훈련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을 접했다.

시는 이번 기업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전북국방벤처센터(센터장 최석규)와 협력해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국방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 전주상의 “멈추지 않는 전진, 전북경제 도약의 해로”

## 김정태 회장 취임 2주년 “회원기업, 지역 경제에 도움 될 것”

2026년 전주상공회의소는 창립 90주년을 지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섰다. 2024년 2월 제25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된 김정태 회장 취임 2주년을 맞았다.

25일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은 “지난 2년은 하루처럼 짧고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취임 2주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적수성연(積水成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이 모여 깊은 연못을 이루듯, 지난 2년은 화려한 변화보다는 지역기업과 함께 기반을 다지고 내실을 쌓아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진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질문에 김회장은 “2025년 전주상공회의소는 실천형 종합경제단체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 무엇보다 말이 아닌 성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만드는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

데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기업 경영 애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무·노무·법무·회계·관세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 전문가 자문단’이 공식 출범해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경영지원에 나

섰다. 또 통상임금 지침 개정과 고용노동·산업안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변화하는 노동·안전 제도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힘썼다.

“2026년도 전주상공회의소의 중점사업과 운영 방향에 대해 김 회장은 “2026년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창립 9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한 4대 비전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성과로 구현하는 해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고의 종합경제단체로서의 대내외 위상은 제고다. 전북CEO지식향연, 백년포럼, 차세대 경영자 모임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인 간 네트워크를 확대해 전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 신규회원 대표자 간담회와 회원사 임직원 초청 문화행사를 확대해 회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제조물책임보험(PL)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및 제휴 복지물 운영을 통해 회원기업의 복지와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의

지를 들어왔다.

김 회장은 도민과 상공인들에 대해 “지난해 전북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 고환율·고비용 구조 등 대내외 복합 요인이 겹치며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가 큰 부담을 안고 버텨야 했던 해였다. 그러나 위기의 시기일수록 지역이 하나로 힘을 모으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회장은 “2026년 병오년, 전주상공회의소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선정했습니다. ‘달리는 말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처럼,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고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며 전북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희망을 전했다. /정소민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주요업무 계획 발표

2026년도 3대 중점 과제 추진

국립전주박물관은 '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26년도 3대 중점 과제'로 △지역문화 전시 및 콘텐츠 확대 △서예문화 브랜드 강화 및 인지도 제고 △박물관 접근성 개선 및 교육·문화행사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지역 전주교사 재조명과 복합문화관 건립 본격화 등 미래 향한 도약을 준비할 방침이다.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장은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전북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고 2026년 도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열린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 전북농협 원예조공법인 사업추진 전략회의

전북 원예농산물 50% 취급

전북농협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지난 24일 전북 원예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통합마케팅 2기 성공 추진을 위해 원예조공공동사업법인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전북 관내 14개 시군 원예조공법인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2025년 조공법인 사업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근 급변하는 소비시장과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 전략과 전북 원예농산물 50% 취급 및 1조원 시대 도약을 위한 통합마케팅 2기 성공 추진을 결의했다. /정소민 기자

이 자리에서 농심전심운동의 일환인 농산물 소비촉진, 2026년 조공법인 사업 추진 계획, 정부 산지유통 방향, 생산유통 통합조직 전환, 농협 스마트팜 보급 확대, 산지 온라인 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전북 관내 14개 시군 원예조공법인은 전북 원예농산물 유통의 핵심 전문조직이다”며 “전북농협은 조공법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원예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한·일 셔틀외교 양국 스타트업 거점 확산

## 쇼난 I-Park와 CIC 도쿄 방문...거점 협력 강화 행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25일 일본 후지사와에 있는 쇼난 I-Park와 도쿄에 있는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각각의 장소에서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하며 한·일 스타트업 거점 협력 강화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일정은 한·일 정상 셔틀외교 기조에 따른 고위급 후속 방일의 일환으로서 양국 거점 바이오분야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제1차관은 이날 후지모토 토시오

CEO를 만나 쇼난 I-Park와 인천 송도(연세대 국제캠퍼스)에 구축하고 있는 K-바이오랩허브와의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쇼난 I-Park는 일본 최대 제약사인 다케다가 조성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으로서, 한국 바이오벤처들이 일본 제약사 및 글로벌 기업과 연구 협업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온 한·일 바이오 협력의 핵심 플랫폼이다.

중기부와 업무협약 체결(23.11) 후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총복 글로벌혁신특구 해외실증 지원을 통해 한국 벤처 10개사가 입주해 있다.

양측은 K-바이오랩허브 완공 전(28.10)까지는 우선 프로그램 위주의 협력

을 진행하고, 완공 이후에는 상호 장비·입주공간 공유 등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협력의 첫 단계로 쇼난 I-Park가 개최하는 ‘Innovation Tiger’ 한국 예선을 K-바이오랩허브가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노 제1차관은 오후 CIC 도쿄를 방문해 팀 로우 대표와 면담을 갖고 CIC와 서울 흥대 일대에 구축중인 K-StartHub 간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CIC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거점을 둔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공유 오피스 제공 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대기업, 투자자를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CIC 도쿄에는 2024년 5월 K-스타트업센터가 개소했으며 현재 한국 스타트업 24개사가 입주해 사무공간과 현지 대기업·지자체와의 협업 등 사업화 기반을 지원받고 있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K-StartHub와 CIC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B·C분야(AI, Beauty&Fashion, Content&Culture)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팀 로우 대표와 면담 이후에는 K-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 6개사와 만나 일본 내 비즈니스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김영태 기자

# 농진청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 비료 사용량 46.7% 메탄 배출 63.9% 감축

기존 완효성 비료의 단점을 보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이 농촌진흥청(청장 이종돈), 산업체, 민관 협력에 의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완효성 비료는 비료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녹는 속도를 조절한다.

비료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 성분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어 농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완효성 비료 대부분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사용 후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와 민관 협력해 완효성 비료의 장점은 유지하

되 사용 후 농업환경의 플라스틱 잔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료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난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대신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부틸렌 석시네이트(PBS), 폴리젓산(PLA)을 혼합해 비료를 코팅하는 기술이다.

생분해성 수지로 비료를 코팅할 경우, 코팅이 쉽게 분해돼 비료 성분 용출 기간을 제어하기 어려운 문제는 코팅 수지 분해와 용출 제어를 균형화한 코팅 기술로 해결했다.

이 코팅 기술을 적용한 완효성 비료를 작물에 살포하면, 작물 재배 기간에 따라 비료 용출 기간을 제어할 수 있다. 아울러 토양에 남은 플라스틱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벼 시험 재배지에 이 코팅 기술을 적용한 완효성 비료를 살포한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비료보다 비료 사용량은 46.7%, 온실가스인 메탄 가스 배출량은 63.9% 줄었다.



<사진=농촌진흥청>

또 코팅 수지가 퇴비화 조건에서 6개월 동안 90% 분해돼 토양 내 남아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비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해당 비료를 우량비료

1호로 지정했다.

반면 기존 완효성 비료보다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농경지 플라스틱 잔존 문제를 해결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 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농식품부 ‘염소산업 발전대책’ 발표

제도개선·인프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염소고기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한 수입 염소고기 점유율의 지속 증가 및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등의 현장의견을 반영해, 2025년 2월부터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염소산업 발전 T/F’를 총 11차례 개최해 정책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노의원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발전대책 주요 내용에는 타축종에 비해 제도 및 인프라 수준이 미비한 염소산업에 대해 생산·유통·질병 분야로 나누어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기반 구축) 염소 개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육량형 신품종(기준 : 13~15개월, 50kg → 개선 : 12개월, 55kg) 개발해 출하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또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표준 설계도 개발 등을 통해 농가 편익을 제고하고, 사육업 미등록 농가에 대한 제도간 운영과 등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기반 구축) 수입 염소고기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원산지판별법 개발을 추진한다.

또 염소 이력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고, 권역별 염소 전용 도축장 지원 및 도축·가공단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공정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불법 도축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염소 가축시장 경매를 확대하고 가격정보를 온라인으로 농가에게 제공하는 등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기존 문전 거래 방식의 농가 손해를 줄일 계획이다.

(질병관리)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어린자축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예방백신과 세균감염으로 인한 건락성립프절염의 예방백신을 개발·보급해 폐사율을 낮춰 사육단계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염소용 의약품 품목허가 간소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심사규정’을 개정해 염소 의약품의 보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점검체계) 분기별 협의체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중기부, 홉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강화

## 대출제한 예외적용 등 신속한 자금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3.31부터 홉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예외)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 등을 도입해 신속하게 자

금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홉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증기관이나 은행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홉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입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

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칙적으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홉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자금 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대출 방식보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홉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 위

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지속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직접대출을 희망하는 홉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3.31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진공 지역본부·센터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로 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북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 개정

### 서류 간소화 전입학 불편 최소화... 학부모 교직원 행정 부담 ↓

전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을 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고등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명확화 △중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관련 법령 및 규정 현행화 등이다. 고등학생은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을 합산해 해당 학교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전학 허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중학교 전학 시 서류를 간소화해 학부모와 교직원 행정 부담을 덜었다.

부모 별거에 의한 주민등록 등재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대신 전학을 신청한 부 또는 모의 '사유서 및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포스티유 가입국 및 해외 한국학교 현황 등을 최신화해 귀국 학생의 해외에서 학습 이력이 보다 정



<사진=전북도교육청>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

## 전북교육청, 초등 입학 초기 적응 돕는다

### '빛나는 1학년이 될래요' 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돕기 위한 '빛나는 1학년이 될래요'를 제작·보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의 3월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시간이다. 낯선 교실, 새로운 친구, 처음 만나는 선생님까지 모든 것이 새롭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아이들이 학교를 '두려운 곳'이 아닌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해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유·초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관계를 배우고 규칙을 이해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만큼 이 자료에는 △친구와 인사하고 소개하기 △우리 교실 약속 만들기 △학교 공간 탐색 활동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았다.



<사진=전북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입학생의 초등학교 입학기 학교생활 적응 지도 역량 강화 △학교 초 수업 안정화 등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첫걸음이 소중한 만큼 우리 교육청은 입문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학교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교육청 '2026년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발대

### 총 125명 구성 진로·진학 본격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2026년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발대식을 25일 개최했다.

2026년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조창녕 교사(고창북고)를 단장으로 98명의 진학전문교사와 자문위원(3명), 권역별 진학부장 협의체(대외협력팀, 20명), 업무팀(4명)을 포함해 총 125명

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비해 전형 분석 기능과 단위학교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특별전형 분석팀을 신설했다.

특별전형 분석팀은 지역인재 전형, 사회통합전형, 고른기회전형 등 대학별로 세분화된 특별전형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대내 고교에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특별전형 분석

팀을 비롯해 △연수 및 현장지원팀 △자료개발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 △수능전형 연구팀 △대입 진로진학상담팀 △대외협력팀으로 운영되며, 2027학년도 대입 진학지도 정보 및 전략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대입 진로진학상담팀은 6개 지역 진로진학상담센터와 14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대면·화상 진학상담을 운영하고, 고3 대상 수시·정시 집중 상담, 계열·전형별 종합 컨설팅 등 현장 맞춤형

진학지도 지원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연구팀과 수능전형 연구팀은 각각의 대입전형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진학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자료개발팀은 다양한 대학별 전형자료를 수집·분석해 대학 진학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사용 진학지도 매뉴얼을 포함해 총 11종의 진학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도 보디빌딩협회, 심판보수교육

전북특별자치도보디빌딩협회(회장 정규훈)는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에서 심판 활동하는 보디빌딩 심판원 30여명에게 보디빌딩 심판규칙의 새로 적용될 변경된 심판규칙과 심판은 절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활동이 보디빌딩 발전과 보디빌딩 인구 저변확대에 매우 필요한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하고 보디빌딩 심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규훈 회장은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하는 심판의 사명감은 매우 중차대하다며 심판원들의 책임있는 심판 활동이 시대적 요청이며 사명감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보디빌딩을 시작하면서 건강과 행복한 가정의 보디빌더 서명락 부부의 일화를 소개하며 보디빌딩 등 체육활동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한다며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장정철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왕실기록문화공간 전시

### 오는 5월 25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은 테마전시 '기록의 보고寶庫를 열다'를 25일부터 오는 5월 25일까지 전시한다.

'기록의 보고寶庫를 열다'는 '전주와 조선왕실실' 관람 환경을 개선하며 외규장각 의궤 및 전주사고의 실록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이번 테마전시를 통해 경기전 '태조어진과 전주사고' '조선왕조실록' 가치가 조명된다.

특히 '외규장각 의궤', '지도', '궁중기록화'까지 다양한 기록문화유산이 소개되며 다음 세대 위한 기록 보전과 지켜온 사람들의 노력을 돌아본다.

국립전주박물관의 "기록의 보고寶庫

를 열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태조어진(太祖御眞)을 포함한 총 20여점에 이른다.

태조어진(太祖御眞)은 조선을 건국한 창업자의 초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1872년에 모사해 전주 경기전에 봉안됐다.

특히 현존하는 가장 온전한 형태의 어진 전신상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와 함께 숙종어용도사도감의궤(肅宗御容圖寫都監儀軌)도 함께 오른다.

숙종어용도사도감의궤(肅宗御容圖寫都監儀軌)는 숙종의 어음을 그린 40여 일의 과정을 기록해 어용도감 설치 경위와 어진 제작 과정, 이후 의궤 제작 및 논상(論賞) 등이 담겨있다. /정소민 기자

숙종은 완성된 어진 봉안 절차를 태조어진 봉안과 동일하게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태조를 계승했음을 드러내고 왕권을 강화했다.

완산부지도(完山府地圖) 병풍도 전시된다.

완산부지도(完山府地圖)는 전주부성과 주변의 자연 지형을 그린 지도로서 병풍의 양 끝 제1폭과 제10폭에 전주부와 관련된 글을 적었다.

제4폭에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산과 강, 하천, 사찰, 누정, 향교 등이 그려져 있어, 조선 후기 전주부 읍치와 관련 건축물의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병풍으로 된 회화식 지도 중 지리지의 내용을 함께 담은 보기 드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정소민 기자



<사진=국립전주박물관>



### 평균연령 73세 익산 만학도들 초등 졸업장 품에 안다

익산시 만학도들이 배움에 대한 도전을 이어간다.

익산시는 25일 익산시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익산행복학교 제6회 초등과정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 졸업생의 평균 연령은 73세로 검정고시 없이 초등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전원 중학학력 인정과정에 입학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최고령 졸업자인 80세 백순자씨와 이삼수씨도 중학과정에 진학해 만학도로서 배움의 즐거움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익산행복학교는 2011년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23개 읍·면·동 작은도서관과 경로당 등에서 찾아가는 학습을 운영하며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이삼수씨(80세)는 "비로소 초등학교 졸업생이 돼 감회가 새롭다"며 "초등학교 동창회에 간다는 말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꿈을 이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며 "앞으로도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60세 이상 대상포진 폐렴구균 무료 접종

정읍시가 올해부터 1년 거주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60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해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로 나선다.

그동안 시는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을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시민'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거주 기간 요건을 없애, 정읍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입 시기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년층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지원한다. 60세부터 64세(1962~1966년생) 사이의 정읍 시민은 폐렴구균 무료 접종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단,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무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정읍시 관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어디서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경우 60세~64세 시민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해 일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자유롭게 접종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3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는 빈집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2026년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00호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사용 또는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진 철거 대상 빈집에는 1호당 최대 300만~4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한다.

국비가 투입되는 공공활용 대상 빈집은 시가 직접 무상 철거 후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에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철거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해당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 통합돌봄 체계 본격 가동

### 의료·요양 통합 지원 내달 전국 시행 대비 복지 안전망 강화

군산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동체 군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25일 제4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통합지원회의에는 시 전담부서를 비롯해 보건소, 주택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발굴된 사례별로 돌봄 공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군산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군산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군산시 지역 돌봄



군산시가 의료·요양 통합 돌봄 통합지원회의를 열었다. <사진=군산시>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민간 자원 발굴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군산의 노인 인구는 작년 말 기준 62,090명으로 고령화율 24.1%를 기록하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도 10,068명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로장애인인가 컨트롤 타워가 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매월 2회 이상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

동체 군산시를 만들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평생 살던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작년 12월 11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추진과 통합제공 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 5개 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 기간 개편

### 올해 출생아부터 12~71개월까지 지원

정읍시가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출생아부터는 지원 기간을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로 변경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육아수당 지원 사업의 핵심은 영아기 이후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급 구간의 합리적인 조정이다. 기존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생후 0개월부터 59개월까지 수당을 받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제는 태어난 직후 영아기에 집중된 기존 국비 지원 정책과 연계해 아이가 자랄수록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초등 학교 입학 전까지 덜어주겠다는 시의 전략적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보호자(부 또는 모)와 그 영아이다.

기존 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새롭게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2026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60일 전부터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수당은 매월 25일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미리 입금된다.

스마트폰앱이나 카드와 연동해 충전되는 방식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육아수당 조정은 정읍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다 함께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정읍시는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보육 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주)팜조아와 10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 농식품 가공산업 선도기업 투자 확대

익산시가 농식품 가공산업 선도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주)팜조아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 황은경 (주)팜조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팜조아는 증가하는 생산 물량과 유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익

산 제4산업단지에서 36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1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3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팜조아는 냉동 밀키트와 리얼 스무디 키트, 냉동 채소 등 간편조리 세트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기업이다. 소비 흐름에 맞춘 제품 개발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 수요 확대에 힘입어 코스트코·이마트·롯데마트·트레이더스·쿠팡·마켓컬리 등 국내 주요 대형 유통사에 제품을 납품해 시장 신뢰도를 높여왔으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이 1차 투자에 이어 추가 증설을 결정한 것은 지역 산업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생명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제3회 군산자원봉사대학 개강

###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대비 봉사 리더 양성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2026 군산자원봉사대학'을 개설하고, 25일 오후 2시 센터 2층 강당에서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군산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2026 세계 자원봉

사자의 해를 앞두고 자원봉사를 지역 변화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제2명하며 실천 역량을 갖춘 봉사 리더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2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회당 2시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의 가치와 역할 이해, 책임과 윤리 교육, 지역 우수사례 공유, 봉사활동 기획 기초, 군산 관내 현장 실습, 성과 공유 및 지속 참여 방안 논의 등이다.

특히 군산·익산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실습형 교육과 환경·안전·돌봄 분야 통합 재난안전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센터는 수료 이후에도 후속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해 교육 성과가 실제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송천규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를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지역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봉사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 제2기 축제시민평가단 40명 위촉

주요 축제 암행 평가 수행

군산시가 제2기 축제시민평가단 위촉식과 워크숍을 지난 25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위촉된 제2기 축제시민평가단은 연인 단원 18명과 신규 단원 22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참여했다.

기존 활동 경험과 새로운 시각이 조화를 이루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축제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평가단은 축제의 부족한 부분을 시민의 의견으로 채워간다는 의미를 담은 '군산축제체육단'이라는 공식명칭으로 활동하게 되며, 오는 4월 24일 개최하는 풍당보리축제를 시작으로 10월 9일 열리는 군산시간여행축제까지 군산시의 주요 축제와 행사에 참여해 암행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홍상훈 기획예산과장은 "축제체육단을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축제의 질적 향상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꾀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시, 내달 6일까지 희망하우스 접수

4년간 무상 임대

정읍시가 빈집 수리비를 최대 3000만원 지원해 4년간 무상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고쳐 귀농·귀촌인, 농촌 유학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빈집 4곳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는 해당 빈집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특히 올해는 지원금 한도를 지난해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 한층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환경 개선이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상 임차 대상에 다문화가정을 새롭게 포함해 더 많은 이웃이 안락한 보금자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수리비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해당 건물을 4년의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지정된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빈집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산시, 전입자·예비부부 등 무료 건강검진

익산시는 보건소에서 전입자, 예비·신혼부부,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입자 건강검진은 익산시로 전입한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전입 주소와 날짜가 기재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건강검진 등 총 23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자는 익산시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첫 임신 전인 신혼부부다. 예비부부는 신분증과 청첩장 또는 예약장 계약서를, 신혼부부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총 25종의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자원봉사자 건강검진은 우수자원봉사자증과 신분증을 준비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총 22종의 검사가 가능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현율 시장 "어양로컬 비상 운영"

정현율 익산시장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중단이라는 위기 상황 앞에서 익산시의회와 농가, 익산 시민에게 빠른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호소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의 땀방울이 서린 직매장이 문을 닫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의 누구의 잘못도 따지기보다 시민과 농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우리 지역 농부들이 직접 키운 신선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시민에게 직접 파는 직거래 시장이다.

이번에 문을 닫게 된 어양점은 감사를 통해 현 운영 주체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가 거듭 드러나 계약 만료일인 오는 28일 이후 위탁을 종료하게 됐다. 이에 시는 직영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했으나 지난해 익산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불발했다. 이어 시가 제출한 타기관 위탁동의안과 공모를 위한 위탁동의안 역시 의회의 문턱을 연이어 넘지 못하게 되면서 어양점은 운영 주체가 없어 문을 닫는 사태를 맞이했다.

시는 운영 중단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비상 행정 체제를 즉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정 시장은 "문제가 있는 단체에 시민의 세금과 공공시설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27만 익산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어양로컬푸드가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부안군 '대월습곡' 보존·관광 활성화

## 천연기념물 '위도 진리 대월습곡' 종합정비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 24일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의 보존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종합정비계획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안군 위도면 진리 산271에 위치한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은 2023년 10월 12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대월습곡은 백악기 이후에 형성된 습곡으로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지층들이 퇴적과정 중 독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원형습곡이다. 대월습곡은 형성된 시기와 배경, 화산습곡의 구조 등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우수한 자연유산이다.

또한 뚜렷한 지층 경계로 이루어진 지름 40m가량의 거대한 원형습곡의 원형구조가 서해바다의 환경과 매우 잘 어우러져 신비로운 경관을 형성하는 등 관광지로도 높은 관심을 받는 곳이다.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국가유산청 '명승 종합정비계획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사진=부안군>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천연기념물 대월습곡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쾌적한 관광 환경 정비와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등 중장기 종합정비 계획이다.

이번 수립하는 계획에는 위도 진리 대월습곡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관리 계획 수립 △간조 만조에 구애받지 않고 대월습곡을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는 진입로 신설 △자연유산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마련 △위도의 다양한 지

질명소를 탐방하는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연차별·단계별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위도 진리 대월습곡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수립으로 부안군민을 비롯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하고 자연유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의 자연유산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연계하는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입주자 모집

## 재배 기술 습득 영농 정착 도움 기대

전북 고창군이 오는 3월 준공 예정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입주 청년농업인을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는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190번지 일원에 4만9775㎡ 규모로 만들어졌다. 단동형 2동, 연동형 3동, 스마트형 1동 등 2만800㎡ 규모

의 온실 6동이 구축된다.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12개 팀이다. 고창군에 거주(주민등록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관외 거주자도 모집공고 마감일 전까지 고창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청년스마트팜TF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은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농업인이 지역 농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 지도를 강화해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13건 안전 의결

##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 전반 논의

김제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한 '2026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이현서 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공무원과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시정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상정된 공유재산 취득 9건, 처분 1건, 임대료 감면 1건, 용도변경·폐지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센터 구축, 튜닝부품산업 스타트업 육성센터 등 전략산업 거점 조성(안)과 공설추모공원 조



2026년 제1회 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사진=김제시>

성, 농생명 영농실 구축 등 주요 민생 현안 사업들이 원안 가결돼 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안)을 함께 확정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도 힘을 보탰다.

이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관리와 처분에 있어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시 전체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군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3월 1일~4월 30일까지 온라인·방문신청 진행

고창군 산림복지과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

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 산림복지과 김중신 과장은 "임업인분들이 신청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기를 바라며,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변경 신청하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강의스킬 비법 전수

평생교육강사학교 전문연수

김제시는 지역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활동 중인 강사 대상으로 강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6 김제시 평생교육 강사학교"연수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디지털·AI 시대에 발맞춰 평생교육 강사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단순한 강의 기술 향상을 넘어 강사 스스로가 평생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강사학교는 현장견학, 전문가 특강, 역량강화 연수, 소양교육 등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먼저 전국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충남 당진시와 홍성

군을 직접 방문해 현지 평생교육 시설 및 우수 평생학습관을 견학하며 타 도시의 선진 사례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지역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학습 기회를 가졌다. 이어 현장 중심의 강의스킬 향상 특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강의 기법을 익히고, 강사 제안형 평생교육사업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강사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평생교육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AI와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평생교육 강사의 역량은 곧 평생학습도시 김제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강사들이 시대 변화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군,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사협 발대식 개최

고창군이 지난 24일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및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관협력 복지 행보에 나섰다.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의 핵심 축인 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지역복지증진에 헌신한 전임 위원장 8명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과 고창군 14읍·면 위원장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다.

사건교육에서 'AI,통합돌봄시대, 지사협 위원의 역할과 실천'을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과 현장 중심의 복지 실천 방안을 공유하며 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고창만들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에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사업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은 오는 3월 3일 화요일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 대상의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 3단계로 이루어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사업은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1단계 북스타트(0~18개월), 2단계 북스타트 플러스(19개월~35개월), 3단계 북스타트 보물 상자(36개월~취학 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을 지참해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도서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단계별로 참여자는 가방, 북스타트 가이드북, 그림책 2권 등으로 구성된 책꾸러미를 배부 받을 수 있다. 단 이전에 동일 단계를 수령한 경우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단, 해당 서비스는 단계별 책꾸러미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사업을 통해 아이가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부안군은 25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군, 경, 소방,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8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2026년 안전관리계획, 2025년 재난실태공시, 2026년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선정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먼저,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의무계획으로 군 안전관리 체계, 재난관리역량 강화 방안, 자연재난·사회재난을 포함한 총 3개 분야 41개 유형의 세부 대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안전사고 관리대책을 담고 있다.

지난해 재난관리실태 공시(안)은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집행현황 등 재난관리실태를 토대로 확정했다.

향후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난 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청자박물관,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 공모전 개최

부안군 청자박물관이 고려 상감청자의 전통을 잇고, 젊은 도예 인재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제2회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한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부안 상감청자는 우리나라 전통 도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부안군 청자박물관은 이러한 전통 위에 대학생 작가들의 참신한 시각과 감각을 더해 오늘의 일상 속에서 쓰일 수 있는 새로운 도자 작품을 발굴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부안군과 부안청자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국내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상감기법을 응용한 실용적인 도자기 작품으로 단품 또는 세트 구성 작품 모두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 서류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3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이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작품 접수가 이뤄진다.

작품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고려 상감청자의 전통과 젊은 예술가들의 창의성이 만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며 "참신한 도자 작품 발굴을 통해 부안 상감청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도자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3월 6일까지 농작물 병해충방제 약제 지원 신청 접수

고창군이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과수화상병, 과수탄저병, 토마토뿔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무·배추 뿌리혹병,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신청기간은 3월 6일이며 △과수탄저병, 무·배추 뿌리혹병, 돌발해충 신청기간은 3월 13일까지로 대상자는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약제 공급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총 1145ha 규모에 3억 5200만원 상당의 방제 약제를 948농가에 지원해 농작물 병해충의 선제적 대응과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에 기여했다.

오성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병해충은 발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기 방제와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농약 살포 시에는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예찰 정보에 따라 방제 시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현업종사자 건강상담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

김제시는 2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2025년 특수건강검진 유소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은 전문기관(자인산업보건연구소)과 협력해 체계적인 산업보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분기 1회), 간호사(월 1회), 산업위생기사(격월 1회)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업 무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환경을 관리하는 등 빈틈없는 보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건강상담은 의사 및 간호사의 1:1 맞춤형 상담과 함께 진행됐으며, △혈압·혈당 등 주요 건강지표 측정 △직업적 질환 및 만성질환 상담 △개인별 생활습관 개선·지도 등 근로자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현업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시의 최우선 가치"라며,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완주군, 산단 공업용수 물길 “두 갈래로”

### 130억 투입 관로 복선화 추진 만경강~정수장 7.1km 신설 노후관 의존 구조 개선

완주군이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물 부족 걱정 없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만경강에서 정수장까지 이어지는 물길을 하나 더 만드는 '복선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오래된 관 하나에만 의존해 물을 끌어오다 보니, 낡은 곳에서 물이 새는 일이 잦아 관로를 새로 깔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번 사업은 약 130억 원을 들여 총 7.1km 길이의 새 관로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군은 공사 효율성, 경제성, 관리 편의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장 적합한 길을 정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공사를 마

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이 끝나면 기존 관로와 새 관로가 함께 운영돼,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더라도 공업용수를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김태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공급로를 두 개로 늘려 기업들이 안심하고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 청년부부 결혼비 지원 첫 도입

### 19~45세 혼인신고자 대상 100만원 남원사랑상품권 지급

남원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다온' 개원과 연계하여, 결혼부터 출산까지 이어지는 남원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출산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1981.1.1.~ 2007.12.31. 출생자)으로, 부부 중 1명만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부부 모두



<사진=남원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지출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과 가전·가구 구입비 등이며, 100만 원 상당의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홍미선 기획예산과 과장은 “이번 사업은 2026년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결

혼 지원정책으로,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남원에서 가정을 꾸리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출산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GAP 확대 지원...농산물 안전 기반 강화

### 인증심사비·포장재비 등 지원 이력관리체계 구축 병행

순창군이 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 농산물 우수 관리(GAP) 인증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군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GAP 인증을 확대하고,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GAP 인증심사비 지원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GAP 인증을 신규·갱신·연장·변경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와 출장·사후관리비 등 심사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인증 비용 부담을 덜어 보다 많은 농가의 GAP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GAP 인증을 유지하며 통합마



<사진=순창군>

케팅 조직에 계통 출하하는 농가에는 GAP 표시가 포함된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공동브랜드 활용을 통한 판로 확대에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 조직을 대상으로 GAP 전문인력(매니저) 운영비와 교육·컨설팅·영농일지 제작 등 이력관리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인증 확

대 계획 수립과 현장 지도, 영농일지 관리 등을 체계화해 실질적인 인증 확대 성과를 거둘 방침이다.

특히 군은 분기별 점검과 엄정한 보조금 정산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군,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추진

### 군·금융기관 1억 공동 출연 최대 3천·이자보전 최대 5년 5%

순창군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군 단독 출연 방식에서 군과 관내 금융기관이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공동 출연하는 구조로 확대 운영되며, 이를 통해 총 12억 5천만 원의 보증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전북도에서 1%의 이차보전을 지원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절감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며,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 운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자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용자를 받을 경우 최대 5년간, 연 최대 5%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용자는 최대 5천만 원, 특례보증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의 경우 신용점수 595점 이상의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되며, 국제·지방세 체납자나 최근 5년 이내 동일 조례로 3천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일반용자 이차보전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서, 특례보증 및 이차

보전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과 순창출장소를 통해 접수한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지역경제의 회복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골목상권의 핵심”이라며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063-633-7611) 및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만인의총 본무덤 발굴조사 개도제 열려

###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일환 남원읍성 복원·유적공원 추진

남원시는 25일 오전 11시 개도제를 시작으로 만인의총 본 무덤을 발굴조사할 예정이다. 2024년 국가유산청의 신규사업인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의총 유지를 포함한 남원읍성을 중심으로 경관의 역사성 회복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개도제는 남원향교(전교 김시열)가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는 고유제(告由祭)를 진행했다.

남원시는 의총 유지 시·발굴조사를 통해 만인의총이 처음 조성된 위치와 무덤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유구 보존·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남원읍성 복원 사업과 함께 유적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지는 1964년 현 위치로 이전하며 사적에서 해제됐고, 이장된 만인의총이 1973년 전북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됐다. 1981년 다시 사적으로 재지정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청소년 시설·지도자, 전국 무대서 '협경사'

### 완주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모범 지도자·시설 표창

완주군청소년수련관과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25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6년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시설 표창' 시상식에서 각각 지도자 부문과 시설 부문 표창을 거머쥐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모범적인 운영 성과를 내고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한 지도자와 시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도자 부문 표창을 받은 이은미 완

주군청소년수련관장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점을 인정 받았다. 특히 청소년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며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설 부문 표창을 수상한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최정선)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과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청소년 주도 활동을 활성화하며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우수 시설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 농업기술보급·지원사업 대상자 심의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정기회 개최 농업·내수면 등 48개 사업 심의

남원시는 2026년도 농업기술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4일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기후변화 대응 패션프루트 안정생산 기술시범 등 농업기술보급 35개사업, 농업지원사업 2개, 내수면분야 지원사업 11개사업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자리로 총 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정기회는 심의위원 18명과 간사 등 13명이 추가 배정돼 총 31명이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앞서 시민들에게 대상 사업 홍보를 위해 읍면동에 책자를 만들어 배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 관련 단체·기관의 전문인들의 위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농가를 선별하는 것이다.

김연주 소장(남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더 나은 농업기술보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심의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향후 남원시 농업기술 보급사업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찾아가는 관광홍보부스' 본격 운영

### 유소년야구대회서 첫 홍보 장류축제·강천산 집중 안내

순창군이 2026년 한 해 동안 관내·관외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행사장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군은 이달 25일부터 3월 2일까지 팔덕다용도경기장 등 4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1회 순창대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스포츠대단 남원지점(063-633-7611) 및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단과 학부모,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안내 △제21회 순창장류축제 홍보 △강천산·용결산 등 주요 관광지 및 관광코스 소개 △맞춤형 여행정보 제공 △기념품 배부 등을 진행한다. 특히 스포츠대회 기간 중 체류하는 외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숙박·체험·관광 연계 정보를 적극 안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관광회와 주요 관광지, 철도역 등에서 순창 관광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보부스에서는 순창을 찾는 선수

## 완주전주통합 군의회 압박 논란 군민 식발까지...갈등 일파만파

최근 전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완주전주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완주군민 및 지역 사회단체가 통합을 반대하는 식발시위를 갖는 등 통합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완주군 주민자치연합회,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등은 25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통합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행정통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완주전주통합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표현이 거론되며,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입장정리를 요구하는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민의 분노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완주군의회 의원들에게 공천을 거론하는 접근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공천은 주민을 대신해 봉사할 사람을 세우는 책임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특정정적을 관철하기 위한 거래수단이 아니더라도 공천을 무기로 삼아 의회의 판단을 흔들려는 시도는 의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군민의 자치권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들은 대통령의 이름과 권위를 동원해 의회를 압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공천을 거론하며 통합 입장을 압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전북 정치권의 일체의 개입을 중단할 것, 완주군민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완주군민의 자치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와 완주군 주민자치연합회는 군의회 정문 앞에서 식발시위를 갖고 집회를 이어갔다. /완주=김명곤 기자

## 완주군 13개 읍·면 주민 화합 고고장구&난타 페스티벌 개막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오는 3월 1일 완주군 둔산공원 일원에서 13개 읍·면이 2026 완주 고고장구&난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한국 고유의 타악기인 고고장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동체형 전통문화 행사로, 완주 13개 읍·면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문화 축제다. 세대 통합형 민속 놀이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주체의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완주 관내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화산면, 완주팀으로 구성된 159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고고장구&난타 경연'은 완주군민과 협동조합 만경강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생활문화 화합의 무대로,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완주군어린이집연합회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 전통 체험부스, 다양한 체험 및 플라마켓이 운영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 이백면 지사협 한전MCS와 주거안전지원 협약

남원시 이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명업, 황도연)는 ㈜한전MCS남원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주거 안전 및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해 야간에 낙상 위험이 높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전등 스위치 조작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 점,소등이 가능한 스위치형 전등을 설치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한다.

이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에 낙상 예방은 물론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여 전기요금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이백면행정복지센터의 1일 1가구 방문 사업과 연계해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임실군, 정확한 측량의 기준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추진

임실군은 각종 건설공사와 토지관련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에 대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설치한 위치와 높이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준기준으로, 지도제작, 지적측량, 각종 도로 및 각종 건설 공사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국가 중요 시설물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임실군 전역에 설치된 산 정상 부근에 설치되어 위치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67점)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높이의 기준이 되는 수준점(27점) 위치(경도·위도)와 높이, 중력 등을 통합적으로 알 수 있는 통합기준점(43점) 등 총 137점이다.

군은 조사반을 편성해 국가기준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일치 여부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기준점의 파손 및 멸실 유무, 기준점의 시야 확보 및 접근성 등이다.

조사 결과 이상이 있는 기준점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여 정비 및 재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부스 운영자 교육 실시

진안군은 오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25일 군청 강당에서 축제 부스 참여자 19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제의 안전성·친환경성을 강화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부스 운영 공통 준수사항 △먹거리·간식부스 위생 및 가격관리 △농특산물 판매 기준 △축제식권 정산 절차 등을 안내했다.

무엇보다 가격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모든 먹거리 및 주류는 적정가격으로 판매하고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설치된 현수막에 임의로 가격을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친환경 축제 조성을 위해 다화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쓰레기 분투 사용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진안군, 대통령 정책특보 만나 지역 핵심 현안 건의

진안군은 지난 24일 세종 국회 연구단지에서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現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만나 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전준성 군수는 지역 발전의 추진 동력이 될 핵심 현안 사업의 당위성과 경제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국도 26호선(보령제) 도로개량 등이다.

진안군은 주천면 일원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지역 수용성 확보와 최적의 입지 조건을 설명하며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완주 소양면에서 진안 부귀면을 잇는 국도 26호선에 대해서는 잦은 사고로부터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계획에 해당 구간의 도로개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협약 체결

###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 위한 협약 체결

장수군은 25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장수농협·장계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김용준 장수농협조합장, 광적용 장계농협조합장, NH농협장수군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한 지역내 소비 촉진과 상생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경제 순환으로 이어져 군민 복리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수군과 2개 농협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및 장수사람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상호 협력하고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기금으로 출연해 환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사진=장수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면지역 하나로마트 조건부 사용 허용과 지역사회 환원활동을 구체화했고 군과 지역농협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한 소비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한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용처

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 장터 운영을 통해 교통·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군민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장수군과 2개 농협은 사업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군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 전반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공동 점검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동계 스포츠 강군 위상 다진다!

### 전국 동계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무주군은 지역 내 초·중·고·무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비롯한 일반 부문의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69명), 스키 알파인(7명), 스노보드(10명) 선수 76명(지도자 11명)이 현재, 제10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출전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애슬론' 선수들은 오는 28일까지 집단출발, 개인, 혼성계주 종목 등에 출전하며, '크로스컨트리'는 클래식, 프

리, 계주, 스프린트, '스키알파인'은 슈퍼퍼대회전과 대회전, 회전 종목에, 그리고 '스노보드'는 하프파이프, 프리스타일, 평행 대회전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 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 전북 바이애슬론연맹, 전북스키·스노보드 협회 관계자 등 30여 명은 대회 첫날인 25일 평창(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참가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보여줬던 동계올림픽 투혼이 우리 무주군 선수들을 통해 되살아나길 바란다"라며 "선수 여러분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안전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동계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임실엔TV, MZ세대 대세배우 이유진 출격

### '최고의 한잔' 개봉박두

임실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실엔TV에 올해부터 MZ세대 대세 배우인 이유진이 전격 출연해 새로운 형태의 신규콘텐츠를 선보인다.

군은 최근 배우 이유진이 출연하는 임실엔TV 신규 콘텐츠인 '최고의 한잔' 촬영을 마치고, 이르면 3월말부터 첫선을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디지털 홍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최고의 한잔'을 온라인 소통전략을 전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군 공식 유튜브 채널 '임실엔TV'는 지난 3년간 '엄니 시리즈'를 통해 지역 관광지와 맛집, 축제 현장을 친근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며 임실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현장중심의 정감있는 콘텐츠로 호응을 얻었던 '엄니 시리즈'는 시즌3를 마지막으로 그 여정을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축적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전환점에 들어서었다.

이날 합동훈련은 임실군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 전북동부문화유산물본센터, 임실소방서 119안전센터, 임실향교 소유자 및 관리자,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훈련은 임실향교 명륜당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최초 발견자의 신고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안전도로 관리 △초동 대응 및 문화유산 반출·기록 △화재 진압 △훈

## 임실군, '문화유산 방재의 날' 맞아 소방합동훈련 실시

### 화재 대응 역량 강화

임실군은 지난 10일 '문화유산 방재의 날'을 맞아 임실향교에서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문화유산 방재의 날'은 2008년 2월 10일에 발생한 서울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유산을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군은 체널 정체성을 한층 확장하기 위해 배우 이유진을 새 진행자로 발탁하고, 지역의 모든 것을 꼼꼼하면서도 다정다감하게 다룰 '최고의 한 잔'프로 그램을 선보인다.

배우 이유진은 유명엔터트 이효정씨의 아들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인기드라마였던 '멜로가체질', 인기예능 '나혼자 산다' 등을 통해 MZ세대 대세배우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의 한 잔'은 브이로그와 웹툰 형식을 결합한 스토리형 탐방 프로그램

으로, 진행자가 임실 곳곳을 직접 찾아 사람과 재료, 공간의 이야기를 엮어 한편의 콘텐츠로 완성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관광지 소개를 넘어 지역의 정서와 가치, 공동체의 온기를 전달하는 감성형 콘텐츠로 제작된다.

군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기존 정보 전달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 기반 예능형 콘텐츠 중심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고, 구독자 확대와 시청층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한방 난임부부 치료 지원

### 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

무주군이 난임 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해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이 함께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치료 과정은 4개월 동안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침구, 뜸 등을 이용한 한방 난임 치료와 2개월간의 추적관찰로 구성되며, 6개월간 진행된다.

단, 사업 참여시 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체외인공)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에 거주 중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하며, 소득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80만 원의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선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

업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무주군은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 체외수정 등 시술비 34건을 지원했으며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4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 외에도 총사업비 3천여만 원을 투입해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난임 난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 예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장수군의회, 백용성 조사 평가 연계 관광벨트 구축 촉구

### 이종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사진)이 장수의 정신적 자산인 '백용성 조사 평가'와 천혜의 경관을 지닌 '동화담 빛꽃길'을 연계하여 장수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 관광 벨트'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섭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순히 잠시 머물다 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돈이 되고 사람이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

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번안면에 위치한 백용성 조사 평가의 역사적 위상에 비해 방문객을 위한 콘텐츠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매년 많은 인파가 몰리는 동화담 빛꽃길의 주차 및 보행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두 거점을 묶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광객은 이제 단순한 구경을 넘어 지역 고유의 가치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며, "백용성 조사의 역사성과 동화담의 심미성이 결합한다면 장수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의회, 장계면 상권 활성화 대책 촉구

### 김남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사진)이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는 장계면 상권의 부활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남수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북부권 경제 거점이자 물류 요충지였던 장계면이 인구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상권 몰락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단순 환경 개선을 넘어선 '공간의 재구성'과 '민관 협력' 중심의 정책 전

환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충남 예산군과 전남 광양시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빈 점포를 지역 특산물 콘텐츠나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혁신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그는 "장계면의 공실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지역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라며 핵심 대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했다.

김 의원은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역사 자산을 활용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장계면 상권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장수군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취약계층 노인복지·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모집

### 저소득층 어르신 구강건강증진

진안군은 치아 결손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해 노인복지(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이 대상이지만, 인명피해가 없도록 초기 대응만 실시 후 대피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 전기시설 및 소화기 점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시술은 진안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진안군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3-430-853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안군보건소 정애경 건강증진과장은 "노인복지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구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장수군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수군 장애인체육회는 25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7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체육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힘쓰는 단체가 지역 나눔에도 적극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나눔에 함께해 주신 장수군 장애인체육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 재향군인회로부터 공로회장 수상**

**국가안보·지역사회 발전 기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사진)이 25일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의향군인회로부터 공로회장을 수상했다.



이번 공로회장 수상은 문 의장

승우 의장은 재향군인회 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며 회장 수여 이유를 밝혔다.

이 평소 보여온 국가안보 및 보훈·향군 관련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승우 의장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을 바쳐 오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향

군인회가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1952년 2월 1일 창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향군 회원의 권익 향상과 국가 발전, 사회 공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 '삼봉 중흥 S-클래스'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야외무대·경광등 설치 등**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이 25일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 삼봉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의원은 그동안 삼봉지구 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입주민 화합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야간 안전 보행을 위한 경광등 설치 등 주민 실생활과 밀착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왔다.

특히, 이 의원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을 누비

며 주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왔으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꾸준한 봉사 실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흥 S-클래스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자는 "이경애 의원은 평소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도 내 일처럼 여기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었다"며 "덕분에 단지 환경이 더욱 쾌적하게 개선되어 고마운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고 전했다.

이경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군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민분들께서 직접 주시는 귀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



킨다"며 "앞으로도 삼봉지구가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른들이 살기 편한 한 명품 주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 공음면, 이장들과 함께하는 '고창인구5만지키기' 캠페인**

고창군 공음면(면장 김애숙)이 지난 23일 이장회의를 마친 뒤, 공음면 이장 40여명이 모여 '고창인구 5만 지키기 피켓 캠페인'을 열었다.

고창군 인구는 올해 1월31일을 기준으로 5만 242명(공음면 2204명)이며, 전년도 1월에 비해 627명(공음면 68명 감소)감소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고창군 인구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이장들은 앞으로도 인구지키기 및 인구증가를 위해 주민들과 협력하며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김애숙 공음면장은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는 함께 가야 할 과제인 만큼, 주민들과 힘을 모아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군산시>

**옥산농협, 취약계층에 성금 500만원 기탁**

군산시 옥산농협협동조합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25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산면 저소득 세대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신 옥산농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규석 조합장은 "희망과 도약을 상징하는 병오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농협으로

서 나눔의 책임을 늘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옥산농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사진=완주군>

**전주풍남로타리클럽, 완주군에 300만원 전달**

국제로타리클럽 3670지구 전주 풍남로타리클럽이 지난 24일 완주군 내 보호 아동들을 돕기 위해 공동생활가정(그림홈) 3곳에 총 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각 시설에 100만 원씩 지원되어 아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안창인 전주풍남로타리클럽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로타리클럽으로서 어려운 아동들

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안창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아동 한 명 한 명의 일상과 성장을 꾸준히 살피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 용지면생생마을관리소, '온(溫)마을 뽕 나눔' 활동**

김제시 용지면 주민들이 직접 뽕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돌봄 활동이 펼쳐졌다.

시는 용지면생생마을관리소가 지역서비스 공동체인 어울림봉사회와 함께 온(溫\_ON) 마을 뽕 나눔 활동을 25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 돌봄 활동이다. 단순한 물품 나눔을 넘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보완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활동은 어울림봉사회 회원들이 직접 뽕을 만들고, 생활지원사와 이장, 부녀회장 등이 함께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뽕 만들기에 지역에서 농업 활동과 나눔을 병행하고 있는 뽕밭영농조합법인의 공간이 활용됐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비부터 전달까지 함께하며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였다.

/김제=은봉기 기자



**영농조합법인 해찬솔, 익산 오산면에 쌀 100포 기탁**

익산시 오산면에 지역사회 상생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나눔이 전달됐다.

영농조합법인 해찬솔은 25일 오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복지이장을 통해 지역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농업인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해찬솔의 출발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 [알림] ■**

▲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장녀 최정민 양 결혼  
(신랑 박상우 장남 박형순 군)

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엘리어나호텔 2층  
일자 : 2026년 3월 1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가전제품 화재예방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

**JBT 전북타임스 인증 캠페인**

**제품관리**

-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원코드를 빼주세요
- 연기나, 타는 냄새가 날 경우 전원코드를 빼고 해당 업체로 문의하세요
- 전원코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말고 해당업체에 문의하세요

**주변관리**

- 멀티콘센트 사용시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전원을 꺼주세요
- 전원코드를 뺐 후 마른수건으로 먼지를 청소해주세요
- 전원코드를 끝까지 꽂아주세요

〈一事一言〉



전북 지역화폐 - 성장의 그늘과 재정 경고등

김관춘  
주필

전북 도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성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규모 확대라는 외형적 성장 뒤에는 재정 부담,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운영 비효율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이 전북 14개 시·군의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는 지역화폐 정책이 이제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전북 14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1조 7,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사용액도 1조 7,194억 원으로 13.5% 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소비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군산, 정읍, 남원 등 일부 지역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를 체감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지역 내 소비 유도와 자금 역의 유통 방지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북 지역화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익산시 '다리로움이' 역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경고다. 발행액과 사용액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소비 활력, 정책 설계, 시민 신뢰도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소비 유형이 일반음식점, 식자재·유통, 보건·복지, 주유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면서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 운용이다. 지역화폐는 '공공 정책 수단'인 만큼 지속 가능성이 핵심인데, 현재 구조는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2025년 할인판매보전금 1,970억 원 가운데 시·군 부담액이 1,189억 원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지방재정이 직접 소비 보조금을 떠안는 구조로, 재정 여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발행 규모 확대 경쟁이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운영 효율성 문제도 심각하다. 14개 시·군이 운영 대행사에 지급한 발행 운영비는 83억 원을 넘어섰다. 발행 수수료율은 전주시 0.19%에서 부안군 1.5%까지 격차가 극심하다. 동일한 공공정책임에도 지자체별 계약 구조에 따라 비용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의 전형이다. 개별 계약 방식은 규모의 경제를 포기한 채 각자도생하는 구조이며, 결국 그 비용은 주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제 전북의 지역화폐 정책은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전북형 통합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 또는 시·군 공동 협의체를 통한 공동 계약 체계가 시급하다. 통합 플랫폼은 발행·운영·정산 시스템을 표준화해 운영비와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데이터 표준화로 정책 효과 분석도 가능해진다. 지역화

폐가 정책 실험 도구가 아니라 과학적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필수다.

둘째, 소비 구조의 정밀 분석과 타겟 정책이 필요하다. 익산 다이로움의 역성장은 단순히 발행 규모 감소가 아니라 소비 심리, 업종별 이용 구조, 할인 정책 설계 등 다층적 문제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명절·축제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된 이벤트성 프로모션에서 벗어나, 골목상권·전통시장·청년 창업 사업 등 정책 대상별 차등 지원이 요구된다. 프랜차이즈와 영세 상인을 구분한 세밀한 데이터 구축 없이는 지역화폐가 대기업 소비 보조금으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재정 건전성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경기 부양 수단이지만 영구적 보조금 정책이 될 수는 없다. 할인율과 발행 규모는 재정 여건, 지역 경제 상황, 정책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립적 경제 생태계 구축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할인 경쟁은 단기 소비를 늘릴 수는 있지만,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킬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역화폐는 단기 경기부양 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략적 정책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성과 경쟁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책임성을 우선하는 성숙한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도와 시·군,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평가 체

를 구축하고, 발행 규모·할인율·재정 투입 효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도 필요하다.

전북이 지금 선택하는 정책 설계와 재정 운용의 원칙이 향후 10년 지역경제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역화폐 정책 역시 냉정한 성과 평가와 과감한 구조 개편이라는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경제 혁신의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 재정 지속 가능성, 운영 효율성, 정책 타겟팅이라는 세 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지역화폐는 '현금성 복지'가 아닌 '지역경제 전략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전북의 지역화폐가 또 하나의 재정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경제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전북이 지역화폐 정책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선심성 정책에 머물 것인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규모보다 구조, 할인율보다 효과, 정치적 성과보다 재정 건전성을 우선하는 성숙한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엄격하게 검증하라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가 던진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기초단체장급 출마 예정자가 17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전북 정치의 현주소로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구조 속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은 선택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전제다. 그럼에도 이번 심사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되면서 투명성 논란까지 더해진 것은 유권자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자충수에 가깝다.

정밀심사 대상자들은 투기성 다주택, 상속 탈당, 당론 위반 경력 등 '부적격'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부동산 투기는 단순한 개인 자산 관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자와 투기 행태에 대해 연이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지역 주민의 삶을 애곡시키는 투기 행태와 연루했다면 이는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받아야 마땅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자격심사 결과의 비공개 원칙이다. 정당의 내부 절차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직 권력의 출발점이 되는 공천 과정은 공공성을 띤다.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법적 문

제, 당규 위반 이력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비공개 뒤에 숨은 순간, 정당은 스스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조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가 정밀심사 대상임을 스스로 공개한 사례는 오히려 정당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성과 투명성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 공천률에 따르면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이며, 상속 탈당, 정치자금법 위반, 교제폭력 등도 새롭게 부적격 항목으로 추가됐다. 이는 당이 과거의 관행적 공천, 계파 논리, 조직 동원 중심의 후보 선출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제도는 운영되는 방식에 따라 공허한 선언이 될 수도 있고, 정치 문화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외 적용이 남발되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다면, 공천 기준은 곧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특히 상속 탈당과 같은 정치적 책임성 문제는 지역 유권자에 대한 배신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전북 정치의 고질적 문제는 '경쟁 없는 경쟁'이다.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과거 후보 검증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고, 유권자의 선택권은 사실상 제한받았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당 내부 공천 과정이 사실상의 선거가 되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민주주의의 질을 좌우한다. 지금 전북 정치가 마주한 과제는 공천 권력의 폐쇄성을 깨고 유권자에게 정보와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문 화 재 열 전**

**무성리삼층석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탑  
-지정일 - 1998년 1월 9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96 (무성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정읍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안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그 해 겨울나무 / 박노해

그해 겨울은 창백했다  
사람들은 위기의 여가를 즐기고 혹은 죽음을 앞기도 하고  
온몸 흔들며 아니라고 하고 다시는 이제 다시는

그 푸른 꿈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팔락이던 이파리도 새들도 노래소리도 순간에 떠나 보냈다.  
젓빛 하늘에선 까마귀떼가 체포조처럼 낙하하고

지친 육신에 가차없는 포승줄이 감기었다.  
그해 겨울,  
나의 시작은 나의 패배였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

6개월 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에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당신의 하루, 전북타임스가 함께 시작 합니다

# 청년이 머무는 익산

## 산업이 자라고, 골목이 살아난다!



← 입주기업 01 ~ 04  
← 입주기업 05 ~ 09

공용공간  
데이터분석실  
사무실  
회의실  
입주기업 10

### 청년·AI·민생 아우르는 '5대 성장전략' 중심 생활 체감형 성장 구조 구축 청년사업 409억 원 투입·AI 의료·농업 인프라 등 미래 산업 밸류체인 완성

익산시가 청년 정착을 중심에 둔 '2026 성장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첨단 산업을 이끌고, 그 성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생활 체감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우진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산업·지역경제·도시 경쟁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2026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시민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 청년 정착이 도시 성장의 출발점...409억 원 투입  
익산시는 올해 일자리, 주거, 복지 등 5개 분야 82개 청년정책 사업에 총 409억 원을 투입한다. 근로청년수당과 전입 청년 주거 지원 등 실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의 기반을 닦는다. 아울러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익산 청년창업보육실'을 중심으로 예비 초기 창업자 발굴부터 사업고도화까지 성장지원을 체계화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의 협업으로 익산청년시청 5층에 조성되는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 in 익산'은 민간투자자 네트워크, 멘토링 등 청년창업가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할 민관협력 허브가 될 전망이다.

◆ AI 중심 산업 고도화...의료·농업 디지털 전환 가속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의료 분야의 경우 2031년까지 총 255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기반 의료 AI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정밀

의료 허브를 원광대학교와 함께 조성한다. 또 농업 분야에서는 총 162억 7,000만 원 규모의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과 169억 원 규모의 '농업기계 자율작업 SW 플랫폼 개발'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지능형 농기계 산업의 필수 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가동...특례보증 지원  
시는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14억 7,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 소상공인 경영안정 금융지원 확대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175억 원 규모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운영하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대출과 최대 4%의 이자를 지원해 자금 부담을 낮춘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안전망'을 가동해 민생경제의 뿌리를 지킨다.

◆ 디지털 행정 대전환...시민 중심 누리집 전면 개편  
시는 올해 시민 편의를 위해 대표 누리집을 포함한 30개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하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반응형 웹 구현으로 모든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전자 서비스와 실시간 자동 번역 기능 도입으로 행정서비스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분산됐던 29개 읍면동 누리집을 통합해 시민들이 한곳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 전통산업의 변신...보석과 문화를 엮은 관광 콘텐츠 확장  
시는 또 지역 전통산업인 보석·주얼리 산업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한다. 보석박물관은 오는 12일부터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기획전 '인생사 새옹지마(馬)'를 개최한

다. 약 100점의 말 조각상 전시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석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우진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청년을 중심으로 산업과 지역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청년이 정착하고 기업이 성장하며 그 성과가 골목상권으로 흐르는 활기찬 익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AX랩 이란?**  
AX-Lab은 인공지능(AI)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실증하기 위한 개방형 연구·개발 및 테스트 공간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AI 기술을 실증 분석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